

# 중·한 긍정 편향 비중립적 의문문의 화용기능 대조 연구

— ‘是不是’의문문, 부정의문문을 중심으로\*

이은경\*\*

## <目 次>

1. 서론
2. 기존 연구
3. 긍정 편향 비중립적 의문문의 화용기능과 대응관계
4. ‘是不是’의문문의 화행과 한국어 대응형식
  - 1) ‘是不是’의문문의 화행
  - 2) ‘是不是VP’의문문과 한국어 ‘-지 않’, ‘-것 아니’부정의문
5. 결론

## 1. 서론

본 연구는 긍정 편향의 비중립적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국어의 ‘是不是’의문문, 부정의문문(不/沒VP嗎), ‘不是……嗎’반어문과 한국어의 부정판정의 문문을 대조 분석하여 체계적 대응관계를 밝히고 화용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긍정 편향 비중립적 의문문이란, 의문문이 갖는 긍정의 전제(또는 가정) 의미를 포괄하고자 하는 필자의 용어로서<sup>1)</sup>, 화자가 의문명제의 긍·부정에 대해 중립적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1024071).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강사

1) ‘긍정 전제’ 또는 ‘가정’이라는 용어는 국어학의 선행연구를 따른 것으로, 장경기(1986, 1989, 2012)는 이를 ‘긍정 전제’라고 하고, 장경희(1982)는 ‘긍정 가정’이라고 하였으며,

인 태도가 아닌, 긍정 쪽으로 치우친 전제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본고는 중국어 ‘是不是’의문문, 중·한 부정형식의 판정의문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의미의 실현양상과 대응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의문형식들이 나타내는 긍정편향 비중립적 의문문의 의미는 세 가지 하위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 ‘是不是’의문문이 긍정 편향의 비중립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 확인되었고<sup>2)</sup>, 반어문(수사의문문)인 ‘不是VP嗎’는 긍정의 전제를 가진 주의환기(환기적 진술)의 의미를 나타내며<sup>3)</sup>, 반어법으로 사용된 일반 부정의문문 역시 긍정의 전제를 가진 강한 진술(적극적 진술)을 표현한다. 한국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 않-(또는 ‘-것 아니-’)로 실현되는 긍정의 전제(가정)를 전달하는 부정의문문<sup>4)</sup>, 그리고 ‘-지 않-’이나 축약형인 ‘-잖-’으로 실현되는 ‘주의환기’의 부정의문문, 마지막 하나는 긍정의 적극적 진술을 나타내는 ‘-안-’, ‘-지 않-’ 부정의문문의 수사적 용법이다. 이 같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긍정 편향 비중립적 의문문의 상호 대응 관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중·한 긍정 편향 비중립적 의문문의 다대일(多對一)의 대응 관계

중국어 의문형식	중국어 예시	대응한국어 예시
① 不/沒VP嗎 (부정의문)	가. 英姬不吃嗎? (미실현형) 나. 英姬沒吃嗎? (실현형)	가. 영희는/가 먹지 않니? (안 먹니?) 나. 영희는/가 먹지 않았니? (안 먹었니?)
② 是不是VP (是不是의문)	가. 是不是英姬吃? (미실현형) 나. 是不是英姬吃了?(실현형)	가. 영희가 먹지 않니? (먹는 거 아니니?) 나. 영희가 먹지 않았니?(먹은 거 아니니?)
③ 不是VP嗎 (반어문)	가. 英姬不是吃嗎? (미실현형) 나. 英姬不是吃了嗎?(실현형)	가. 영희는 먹지 않니? (먹잖니?) <sup>5)</sup> 나. 영희는 먹지 않았니? (먹었잖니?)

장석진(1984a)은 ‘긍정 전제’ 또는 ‘가정의 비중립적 태도’라고 하였다.

2) 邵敬敏·朱彥(2002) 참조.

3) 반어문(反問句)은 반어법의 의미로써 한국어학계에서의 수사적문문(rhetorical question)과 동의의 용어이다.

4) 장경희(1982)는 ‘안-’ 부정의문문이 긍정의 가정을 전달하는 함축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하였다.

5) 정원수(1988)에 의하면 이러한 ‘-지 않-’의 확인의문문은 ‘-잖-’으로 쉽게 축약되며, ‘-지 않-’과 ‘-잖-’은 사실상 형태상의 차이는 없고 단지 발음상 강세나 억양이 의미차이를 가져온다

표(1)과 같이 ①, ②, ③의 각기 다른 중국어 의문형식이 모두 공통적으로 한국어 '-지 않-' 부정판정의문에 대응될 수 있으며, 한국어 부정판정의문형식의 세부적 양상을 고려하면, '안-' 단형부정 '-지 않-'(축약형 '-잖-')장형부정, '-것 아니-'부정이 긍정편향 비중립적 의문문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sup>6)</sup>

이 같은 중·한 대응관계에 대해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의 경우 부정판정의문문의 형식과 의미의 부류가 다양한데, 중립적 의미와 비중립적 의미를 포함하여 이러한 의문문의 화용의미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각 의미의 중국어와의 대응관계를 명시적으로 논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표1]에서 보이듯이 긍정편향의 비중립적 의문문인 중국어의 '是不是VP'의문문이 한국어에서는 '-지 않-', '-것 아니-'라는 두 개의 부정판정의문형식으로 실현되는데, 긍정 편향의 '是不是'의문문 내부의 어떠한 의미차이가 한국어에서 '-지 않-'과 '-것 아니-'의문문을 구분하게 하는 것인가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是不是VP'의문문과 한국어의 부정의문문 'VP지 않-', 'VP것 아니-'가 의미적으로 대응되는 형식이라는 것은 밝혀졌지만 이 두 한국어 형식이 의미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대응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고찰을 위해 본고는 말뭉치의 용례를 분석하고 인용하였다. 중국어 예문의 출처는 기존연구와 함께, 북경대학교 중국 언어학 연구 중심(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의 현대중국어 구어 말뭉치 검색자료를 참고하였으며, 한국어 말뭉치 자료로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2004년 구축한 구어전사자료로서 현대국어 주제대화 파일 총 26개를 분석('것 아니-'부정의문 총 201개, '-지 않-' 부정의

고 하였다. 손세모들(1999), 강현화(2009) 역시 '-잖-'은 상승조도 가질 수 있는데 그 때는 부분적으로 '-지 않-'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많이 마셨잖아요?(↗)"와 "많이 마셨지 않아요?(↗)"는 발화시 사람에 따라 이들을 '-지 않-'으로 인지할 수 있고, '-잖-'으로도 인지할 수 있지만 모두 '-지 않-'의 확인의문문의 의미를 전달한다. 반대로 문미의 어조가 하강조, 즉 "많이 마셨잖아요.(↘)" "많이 마셨지 않아요.(↘)" 라면 '-잖-'의 의미가 전달된다.

6) 학계에서 일찍이 '-지 않-' 부정의문의 단순하지 않은 화용의미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중 긍정 전체(편향)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김동식(1981)은 '확인의문'으로, 장석진(1984a)은 '부가의문'으로, 장경기(1986, 1989, 2012)는 '부정의문'으로 논의하였다.

문 총 206개 검색)하였다.

## 2. 기존 연구

### 1) 중국어 긍정 편향 비중립적 의문문에 대한 연구

우선 ‘是不是VP’형식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반의문문의 중립적인 의미와 다른 긍정 편향의 비중립적 의미에 대한 연구(陶煉(1998), 邵敬敏·朱彥(2002))와 함께, 청유용법(陳穎(2001)), 담화표지로의 허화(方梅(2005))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是不是VP’의 의미에 집중되어 있고, ‘是不是NP’가 나타낼 수 있는 비중립적인 의미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 따르면 ‘是不是NP’ 역시 긍정 편향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두 형식 모두 ‘是不是’ 의문문의 체계 내에서 의미기능별 하위 유형을 분류하여 기술할 수 있다.

반어문의 용법은 주로 ‘不是VP嗎’에 집중되어 있는데 曹娟(2010), 郭繼懋(1987), 胡建鋒(2011), 劉姬瑯·陶紅印(2011), 毛文星(2010), 史金生(1997), 吳麗君·魯文霞(2008)와 같은 연구들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 같은 논의들은 ‘不是……嗎’의문의 일반적인 부정의문과는 다른 통사·의미·화용기능을 매우 자세하게 정리하고 설명한 것으로 교육적인 가치가 인정된다. 그러나 한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문법서에 ‘不是……嗎’의문과 일반 부정의문문의 한국어 대응형식이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어 이들의 의미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劉姬瑯·陶紅印(2011)은 부정반어문의 화용법을 분석하였으나, ‘不是NP嗎’, ‘沒VP嗎’, ‘不VP嗎’와 ‘不是VP嗎’를 동일 체계에서 분석함으로써 형식 간 화용적 차이가 설명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체계에서는 “沒告訴你嗎?”, “不是告訴你了嗎?”의 차이가 설명되지 못하고 동일시된다. 국내의 문법서에 이 두 예시가 동일한 한국어 (“내가 알려주지 않았어?”)로 대응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이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논의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형태·통사적으로 차이가 있는 ‘不

是VP嗎'와 '不是NP嗎'의 관련성과 차이를 체계 내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존재한다.

## 2) 한국어 긍정 편향 비중립적 부정의문문에 대한 연구

초기의 연구는 국어 '-지 않-'의문문이 긍정 편향의 비중립적 의문문으로써, 부정성이 아닌 긍정의 가정을 나타냄에 주목하여 이에 대하여 국어의 긍·부정 판정의 문문의 차이에 대하여 논하거나, 화용론적 특징 또는 화행을 분석하여 이러한 형식의 특수성을 논의한 것들인데, 성광수(1980), 김동식(1981), 장경희(1982), 박종갑(1982, 1984), 장석진(1984a, b), 장경기(1986, 1989, 2012)는 한국어의 부정의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이어진 연구에서는 이러한 긍정가정의 부정의문 '-지 않-'을 '-잖-'이라는 융합형태로 보고 '-지 않-'과 '-잖-'의 쓰임을 구분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원수(1988), 손세모들(1999), 이현희(2004), 황성희(2007), 강현화(2009), 한승규(2014) 등의 논의가 주요하다. 또한 부정의문문을 비롯하여 의문문의 화행과 화용의미, 응답방식 등을 연구한 것으로, 박종갑(1982, 1987), 장석진(1984), 류현미(1992), 김미숙(1997: 51-100), 구중남(2001, 2004) 등의 연구는 부정의문문의 연구 방법론과 응용에 있어 주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한국어의 부정의문의 통사·의미·화용적 특징을 파악하게 해주는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중·한 대조분석과 중국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수 영역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언어 간 대조를 통해 적절한 대응형식을 제시하고 상호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방면의 포괄적이고 설명력 있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으로 보인다.

## 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의문문의 연구

한국인의 발화에서 상용되는 부정의문문은 단순하지 않은 의미기능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과 교수 연구의 영역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왔다. 중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수의 측면에서 의미를 분석하고 분류한 것으로는 특히 안윤미(2007), 이춘염(2013), 진강려(2011, 2012), 배정경(2015)과 같은 연구가 주요하다. 그러나 연구자 본인들(이춘염(2013:49-59), 배정경(2015:22)) 역시 한국어 부정의문문과 ‘是不是’의문문의 관계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춘염(2013:56)의 예를 인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7)</sup>

- (1) (어제 명동 거리에서 지민과 닮은 사람을 보았다.  
 오늘 학교에서 지민에게 물어본다.)  
 我: 你昨天是不是去明洞了? 我好像看見你了。  
 나: 너 어제 명동 갔었니? 나 어제 너를 본 것 같아.

위와 같이 긍정 편향 비중립적 의문문인 ‘是不是’의문문(“你昨天是不是去明洞了?”)이 중립적 긍정의문문(“너 어제 명동 갔었니?”)으로 대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중국어의 ‘是不是’로 구성된 긍정 편향 의문문의 의미가 한국어에서는 부정판정의문문(“너 어제 명동가지 않았니?”)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연구자 자신도 확실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한국어 부정의문문 교수와 학습의 어려움과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윤미(2007:58-64)의 연구에서도 특히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부정의문문의 습득이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염려’, ‘질책’, ‘동의 요청’의 부정의문문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지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책 재밌지 않니?”보다 상응하는 긍정문(“이제 그만 먹어라!”, “지각을 너무 많이 하네요.”, “이 책 재밌지?”)을 더 많이 사용하는 화용적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와 학습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중국인의 교수·학습에 있어서 긍정

7) 배정경(2015:22) 역시 “你昨天是不是去東大門了? 我好像看到你。”를 예시하고 “어제 너 동대문 갔었니? 나 너를 본 거 같아.”라고 긍정판정의문문을 제시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편향의 비중립적 의문문으로써 한국어 부정의문문과 중국어의 관련의문문과의 대응관계가 적절하게 설명되고 충분히 중시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진강려(2011, 2012)는 한국어의 부정의문문과 의문문의 화용의미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이들과 중국어의 관련성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중·한 긍정 편향의 비중립적 의문문의 대조연구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수정과 보충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 3. 긍정 편향 비중립적 의문문의 화용기능과 대응관계

부정의문문에 의미에 대해 Chafes(1970:322-3)는 화자가 처음에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부정적임을 알리는 새로운 증거를 얻게 되었을 때 '의외(surprised)'라는 생각과 함께 묻는 물음으로 보았다. Hoepelman(1982:224) 역시 의문문의 부정은 화자 자신이 긍정의 내용을 기대하는 곳에서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묻는 질문이라고 하였다. 박종갑(1984)과 장경희(1982)는 이 같은 의미를 부정의문문의 일반적인 의미로 인용하였는데, 이는 부정의문문의 담화상에서의 다양한 의미기능 중 한 부분만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의문문의 의미기능은 담화상의 맥락적인 정보 없이는 파악될 수 없으며 특히 한국어의 부정의문문은 다양한 의미기능을 하는 것으로 맥락과 담화 상황에 따른 의미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sup>8)</sup> 본고는 한국어 말뭉치 구어 대화 26개 파일에서 부정의문문 '안' 단형부정의문, '-지 않-', '-것 아니' 부정의문문 각각 69개, 207개, 199개의 예문을 검색하여 담화맥락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우선 기존 논의에서 중립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비중립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지 않-' 장형 부정의문형식의 맥락상의 화용의미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9)</sup>

8) 장경희(1982)에 의하면 긍정의문과 부정의문을 선택하게 하는 화용론적 제약은 의문문 자체 또는 그에 대한 응답과의 관계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질문과 응답의 상황보다 더 넓은 상황에 주의할 때 이들의 사용상의 제약이 드러난다.

- (2) a. (너 왜 아직 여기 있어?) 명동에 가지 않았니?(안 갔니?)  
 你沒去明洞嗎?  
 b. (나 명동에 안 갔는데.) 어 정말? 명동에 가지 않았니?  
 你(真的)沒去明洞嗎?  
 c. (혹시 어제) 명동에 가지 않았니? 你是不是去明洞了?  
 d. 영희 어디 갔어? 명동에 갔지 않니?↘ (명동 갔잖니?)  
 你不是去明洞了嗎?  
 e. 어허 사진이 찍혔는데, 이래도 가지 않았니? (안 갔니?)  
 你(難道)沒去明洞嗎?

a는 화자가 긍정적인 내용이나 대답, 또는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하는 곳에서 그 기대가 어긋나면서 묻는 물음으로 장경희(1982)에 따라 서실적 가정이 부정적으로 존재할 때 그 부정적 가정을 묻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b 역시 부정적으로 존재하는 서실적 가정을 묻는 물음이다. a와 b 둘 다 부정적인 서실적 가정을 묻는 물음인데, a는 부정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 의해, b는 청자의 부정적인 선행 발화에 의해 그러한 가정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a와 b의 의미가 바로 Chafes(1970:322-3)와 Hoepelman(1982:224)이 논한 부정의문문의 의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c는 장경희(1982)의 서상적 가정을 묻는 의문으로 긍정쪽으로 편향된 화자의 믿음, 정보를 나타내며 이에 대해 상대에게 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d는 화자의 긍정쪽 전체에 대해 상대(청자)도 알고 있음을 나타내며 ‘주의 환기’의 기능을 하는 물음이다. 그리고 마지막

9) 각 의미별로 세부적 부정형식의 사용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예를 들어 장·단형 부정형식의 사용) 동일한 부정형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한국어의문문을 통합해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10) 장경기(1993)에 의하면 부정의문문에는 비전제용법과 전제용법이 있는데 비전제용법은 “화자가 아무 전제없이 단순히 사실의 확인을 위해 묻는 의문문이다. 이때는 긍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의 차이는 스타일 상의 차이 정도다.” 본고의 예문 a는 이미 화자의 궁극적 기대가 깨진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발생한 부정의문문인데, 장경기의 ‘단순히 사실의 확인을 위해 묻는 의문’이라는 설명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부정의문문의 스타일이 긍정의문문과 어떻게 다른지 밝혀져야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11) 장경희(1982)에 의하면 서실적 상황은 화자의 믿음과 관계없이 사실인 것으로 존재하는 사실적 세계이고 서상적 상황은 화자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화자의 믿음의 세계이다. 서상(叙想)의문은 서상적 상황에서 주어지는 가정(Assumption)을 묻는 의문이며 서실(叙實)의문은 서실적 상황에서 주어지는 가정을 묻는 의문이다.



e는 부정의문문의 수사어문문 용법으로 강력한 긍정 쪽의 사실을 주장하는 강한 (적극적) 진술의 화행을 나타내는 물음이다. 이 같은 한국어 부정관정의문형식의 각 의미에 중국어를 대입하면 위와 같이 a, b, e는 일반부정관정의문으로, c는 '是不是VP'의문문으로, 그리고 d는 '不是VP嗎'(수사어문문)로 실현됨을 볼 수 있다.

동사술어구뿐만 아니라 형용사술어의 부정의문문의 의미도 a-e까지의 동일한 분포를 보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 a. (여기 어떤 일이야) 바쁘지 않니? 你不忙嗎?  
 b. (나 바쁘지 않은데) 정말 바쁘지 않니? 你真的不忙嗎?  
 c. (너 혹시 요즘) 바쁘지 않니? 你是不是很忙?  
 d. (너 내일) 바쁘지 않니? \ (바쁘잖니) 你不是很忙嗎?  
 e. (이거 봐. 이래도) 바쁘지 않니? 你難道不忙嗎?

계사 부정의문 'NP 아니-'의 의미 역시 동일하게 설명 가능하다.

- (4) a. (철수가 순이 손을 잡고 감) 재 영희 남자친구 아니야? 他不是英姬的男朋友嗎?  
 b. 재 정말 영희 남자친구 아니야? 他真的不是英姬的男朋友嗎?  
 c. 재 혹시 영희 남자친구 아니야? 他是不是英姬的男朋友?  
 d. 재 누구야? 재 영희 남자친구 아니야? \<sup>12)</sup> 他不是英姬的男朋友嗎?  
 e. 이래도 영희 남자친구 아니야? 難道他不是英姬的男朋友嗎?

계사 부정의문 (4)c의 의미에 해당하는 중국어는 일반적인 정반의문문의 형식과 동일한 형식 '是不是NP'을 취한다. 즉 이러한 형식은 정반의문문의 중립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是不是VP'가 나타내는 긍정 편향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sup>13)</sup>

12) 문미하강조의 'NP 아니야\''는 'NP잖아'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김미숙 (1997:44)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미하강조의 어휘적 부정 '아니다'와 장형부정 '-지 않-' 부정의문 형식의 화행은 모두 화자전제가 확실하여 청자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1) 넌 영수 동생 아니니?\  
 (2) 넌 영수 동생이지 않니?(잖니?)\

13) '是不是'의문문의 긍정편향 비중립적 의미는 '是NP'라 계사술어 명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어는 '是不是NP'라는 통사적 구조를 허용하지 않으며 '是不是(\*是)NP'로 실현된다. 이를 통사적으로도 확인되는데 '是NP'가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不/也/

‘是不是NP’의 의미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은 국내 문법서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형식(부정판단의문문(NP 아닙니까?), 긍정판단의문문(NP입니까?, NP이지요?), 선정의문문(NP이예요, 아니예요?))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각 의미에 대한 적절한 설명 없이 동일한 중국어 형식에 상이한 한국어 형식이 대응되고 있어서 한국어 학습과 중국어와의 대조연구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진강려(2011)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정의문문을 모두 확인기능의 예로 제시하였다.<sup>14)</sup>

- (5) a. (수진의의 고향이 부산인데 당신은 대구라고 생각했다.)  
수진: 이번 추석 때 부산에 내려갈 거야.  
나: 오? 네 고향은 대구 아니야? (你的老家不是大邱嗎?)  
b. 혹시 왕 선생님이 아니세요? (您是不是王老師?)

그러나 사실상 한국어 a, b의 부정의문문의 의미는 서로 다르며, 중국어에서도 각각 다른 형식이 이에 대응된다. a는 대구인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은 부정적 가정에 직면하여 묻는 서실적 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 b는 상대방을 왕선생님이라고 추정하는 화자의 비중립적 태도가 드러나는 서상적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서실적 가정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서실적 확인으로 중국어의 ‘不是NP嗎’가 대응될 수 있고, 후자는 화자의 긍정적 가정을 확인하는 서상적 확인으로 ‘是不是NP’가 이에 대응될 수 있다.

또한, 동사나 형용사 술어를 가진 ‘不是VP嗎’의문형식이 기타 의문문과 형식적으로 구별되는데 반해, (4)d의 중국어 예문에서 계사 술어구는 ‘不是NP嗎’로 실현

都是NP에 다음과 같이 ‘是不是’의문문이 적용될 수 있다.

- (1) 我是不是(不)是這個材料啊? 내가 이 재목이 아닌 거 아니야?  
(2) 你們這里的小姐是不是(都)是海量? 이곳의 아가씨들은 모두 주량이 센 거 아니예요?  
(3) 成功是不是(也)是 一个永恒的話題呢? 성공 역시 영원한 주제가 아니예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선행 부사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모두 다음과 같이 是不是NP로 실현된다.

- (1)' 我是不是這個材料啊? 내가 이러한 재목 아니야?  
(2)' 你們這里的小姐是不是海量? 이곳의 아가씨들은 주량이 센 거 아니예요?  
(3)' 成功是不是 一个永恒的話題呢? 성공은 영원한 주제가 아니예요?

14) 팔호안의 중국어는 본고의 필자가 보충한 것임.

되어, (4)a, b, e 와 동일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실상 '是NP'라는 명제에 '不是……嗎' 반어문을 적용하면 기저의 구조는 '不是是NP嗎'인데 통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是'가 탈락되어 '不是NP嗎'로 실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이러한 형식 역시 기존에 일반적으로 '不是VP嗎' 만을 반어문으로 인정했던 것과 달리 '不是NP嗎'를 통합하여 '不是……嗎' 반어문으로 처리하고 동일형식의 다른 의미에 대해서 (4)와 같이 a-e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한국어 부정의문문의 중의와 대응되는 일부 중국어의 중의의 형식들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교수에 있어서 본장의 분류와 같이 한국어 부정의문문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5유형으로 구분하여 중국어와의 대응관계를 제시하고 맥락을 참고한다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관련 의미의 교수에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한국어의 동사, 형용사, 계사 부정의문형식의 5개의 의미 부류와 각 의미와 대응되는 중국어형식을 간단히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한국어 부정의문문의 의미유형과 대응 중국어형식

	긍·부정 편향	하위 의미부류	의미의 상위부류	한국어 형식	중국어 형식
a	부정적 전제 (가정)	부정의 서실적 가정 (부정적 상황 하에)	부정 가정의 부정의문	-지 않-, 안-	일반부정판정의 문(不/沒VP)
b		부정의 서실적 가정 (부정적 선행발화 하에)			
c	긍정적 전제 (가정)	긍정의 서상적 가정 확인	긍정 편향의 비중립적 부정의문	-지 않-, 아니↗	是不是NP/VP
d		주의 환기(환기적 진술)		-잖-, 아니↘	不是NP/VP嗎
e		강한(적극적) 진술의 수사의문		-지 않-, 안-	일반부정판정의 문(不/沒VP)

15) 말뭉치 검색의 예 “咱不是都是以寫作爲命的人嗎?”(우리는 모두 글쓰기를 목숨(운명)으로 여기는 사람들 아니야?)는 '是NP'에 부사가 선행할 때 '不是都是'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물론 이러한 '不是都是'는 '不都是'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의미적으로 '都'가 없다면 역시 '是NP嗎' 즉 “咱不是以寫作爲命的人嗎?”(우리는 글쓰기를 목숨(운명)으로 여기는 사람들 아니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 중 긍정 전제를 가지고 있는 c, d, e는 화용적으로 어투나 태도, 주장 등의 세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c는 소극적 태도 즉 긍정 쪽으로 편향된 전제를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의문이며, 그 다음 d는 이보다 조금 더 강한 (화자의 긍정 전제를 청자에게 환기하는) 환기적 의문이고, 가장 강한 것이 e의 반어문(수사법)이다. 이는 강한 긍정 주장의 반어법의 표현으로 강한 진술의 화행을 나타내며 주장의 적극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예문의 제시 순서대로 태도가 적극적이고 어투나 주장이 강하게 드러난다.

- (6) c. 너 명동에 가지 않았니?           아빠 명동에 가지지 않았어요?  
 d. 너 명동에 갔지 않아(갔잖아).       아빠 명동에 가셨잖아요.  
 e. 너 (이래도) 명동 안 갔니?           아빠 명동에 안 가셨어요?

(6)c-d-e로 갈수록 적극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c는 조심스러운 태도의 약한 발화이고 e는 적극적인 태도의 강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동식(1981)은 c와 같은 의문(영희가 먹지 않니?)은 ‘-아니’가 부정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닌 ‘영이가 먹는다’는 사실을 화자가 알고 있으면서 확인하려고 물을 때 사용되는 확인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확인문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의식은 자신이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다 해도 남에게 곧바로 나타내기를 주저하는 경향을 갖는데, 그것은 남에게서 적의에 찬 반발을 받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남을 존중하는 자기의 겸손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의문문의 화용적 특성을 논한 박종갑(1984)은 c와 같은 의문문의 의미를 긍정의 가정을 묻는 부정의 문문이라고 하고, 이는 질문의 소극적 태도이며 조심스런 태도라고 하였다.<sup>16)</sup> 김미숙(1997:65-70) 역시 c와 같은 질문의 화행을 소극적 진술 기능으로 보았는데,

16) 박종갑(1984)은 부정의문문의 의미에 대한 기존 논의에 의하면 “(29)에 대한 (30)의 대답에서 (30)은 화자가 처음에는 철수가 잤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상반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의아한 느낌과 함께 묻고 있는 경우가 된다”며,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증거의 유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질문태도에 달린 문제라고 하였다.

(29) 누가 유리를 썼니?  
 (30) ㄱ. 철수가 잤니?  
       ㄴ. 철수가 안 잤니?

이는 화자의 명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청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약한 질문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때로 화자전제가 확실한 경우에도 공손 (Politeness strategies)의 한 표현 방법으로 발화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sup>17)</sup>

이상, 본장에서는 한국어 부정의문형식의 의미를 5부류로 구분하고 각 의미별 중국어 의문형식과의 대응관계를 제시하였다. 이 중 긍정편향 비중립적 의미는 태도나 주장의 적극성 정도나, 어투의 세기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세 가지 의미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 4. ‘是不是’의문문의 화행과 한국어 대응형식

##### 1) ‘是不是’의문문의 화행

이은경(2016c)에서는 ‘是不是NP’ 역시 ‘是不是VP’와 동일한 긍정 전제를 가진 비중립적 확인 요청 화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이 같은 ‘是不是NP’의 의미를 ‘是’동사의 정반의문문으로서의 의미와 구분하여 ‘是不是VP’와 통합하여 기술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기존연구와 말뭉치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是不是NP’와 ‘是不是VP’를 포괄하여 ‘是不是’형식으로 실현되는 의문문의 화용의미를 분류하였는데, 화행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유형-‘是’동사의 정반의문문, ‘是不是’의문문, 정반의문문의 반어법(수사의문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 유형과 나타내는 화행, 그리고 중·한 예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중국어 ‘是不是’의문문 또한 공손 전략(politeness strategies)을 포함하는 화행(邵敬敏·朱彦(2002))이라고도 설명되며,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의 부정의문 역시 공손 전략(김미숙(1997:65-70), 통사적 완화장치(이준호(2008)), 체면의 위협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진강려(2011))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표3] '是不是'형식 의문문의 화행유형과 중·한 대비

유형과 화행	중국어 예시	한국어 예시
① 是동사의 정반의문문:  NP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 응답 요청 (중립적 의문)	是不是 NP 是不是你的手机? 是不是你的女儿?	이것이 당신 핸드폰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핸드폰 맞아요?) 당신 딸이에요 아니에요? (딸이 맞아요?)
	是不是 VP [내포]判断一家公司是不是有文化 [내포]不知道它是不是真的是个好模式, 到底是不是VP? 是不是值得?	한 회사가 문화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다. 그것이 정말 좋은 모형인지 아닌지 모른다. 도대체 VP예요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 것일까?
② 是不是의문문:  명제내용 동의 또는 확인요청, 추측 진술 (긍정 편향 비중립 의문 <sup>18)</sup> )	是不是 NP 是不是你的手机? 是不是你的女儿? 您是不是金老师?	이거 (혹시) 네 핸드폰 아니니? 당신 딸 아니에요? (저 혹시) 김선생님 아니세요?
	是不是 VP 是不是在哪儿丢了? 是不是很累? 是不是帮我借点儿钱? 我们是不是去帮一下?	너 혹시 어디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 (잃어버리지 않았니?)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한 거 아니세요?) 돈 좀 빌려주지 않을래? 우리 가서 좀 도와주지 않을래?
③ 정반의문문의 반어법:  주장강조(이의제기, 비난 등)의 강한 진술 또는 적극적 진술 (긍정 또는 부정 편향 비중립적 의문)	是不是 NP 我还是不是你的妈妈? 你是不是男人? 这是不是你的书? 你是不是人? 你还是不是男人?	내가 너의 엄마 아니니? (너의 엄마다) 너 남자야 아니야? (남자다) 이거 네 책이니 아니니? (네 책이다) 네가 사람이니?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도) 네가 남자니? (남자 아니다)

위의 표를 보면 기존 연구와 다른 부분은 긍정 편향 비중립적 의미의 '是不是'의 문문에 '是不是VP' 외에도 '是不是NP'를 포함시켰다는 것과 '是不是VP' 역시 중립적 의문인 정반의문문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본고의 말뭉치 분석에 따르면 '是不是VP'의 예들이 대부분 긍정 전제의 편향된 비중립적인 의미를 갖지만 정반의문문과 동일하게 중립적 의미를 나타내는 예들이 존재한다. 이는 주로 '是

18) 가정 비중립적 의미는 장경희(1982), 장석진(1984)의 용어를 응용한 것으로 화자의 태도가 긍정 또는 부정으로 치우치는 태도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장경기(1986, 1989)에서는 이러한 의미적 구분을 비전제용법과 전제용법으로 구분한다.

不是VP가 내포문으로 기능할 때이며, 문장으로서 독립된 경우, 비교적 소수의 예들이 보인다. 우선 내포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7) a. 判斷一家公司是不是有文化, 可以看普通員工是不是愿意向別人介紹公司。
- b. 不知道它是不是真的像我想的那樣是个好模式。
- c. 經濟對職業着裝, 是不是准時上班要求得不是那么嚴格了。

(7)a-c는 '是不是VP'가 문장성분(a-주어, b-목적어, c-전치사의 목적어)으로 내포된 예이다. 그러나 내포문이 모두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동사 '懷疑'의 목적절은 비중립적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8) 因為大家會懷疑一個人推薦什麼人是不是有其他目的。  
사람들이 한사람이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중립적)

다음으로 '是不是VP'가 술어의 중심으로 사용되어 편향되지 않은 정반의문문의 중립적 의미를 나타내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 (9) a. 這個經方到底是不是就固定這些方子?  
이런 배합이 이러한 방법에만 고정된 것인가?
- b. 我到底是不是長得像一个叫做賬房兩個字?  
내가 장부담당원처럼 생겼나?
- c. 當時我的感受就是, (c-1)投資是不是太累了, 把頭髮弄白色了,  
(c-2)是不是值得? 투자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가치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9)a, b와 같이 '到底'(도대체)의 수식을 받으면 중립적인 의미가 문장 단위에서도 드러나지만 이러한 부사가 나타나지 않은 c와 같은 경우 담화의 문맥을 고려해야만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인 의미가 드러난다. c에서 '是不是VP'의

예가 두 개 보이는데, c-1은 비중립적 긍정 편향의 의미를 나타내며, c-2는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是不是VP’의 중립적인 의미는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긍정관정의문문이나 정반의문문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是不是’형식의 의문문이 나타내는 각 화행의 분업이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중 반어문의 강한 진술(또는 적극적 진술)의 화행은 다양한 맥락에서 화용의미(이의제기, 비난, 질책, 불만 등)가 세분될 수 있다.<sup>19)</sup>

이상과 같은 중한 대응관계에 대해 본고가 더 나아가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②의 ‘是不是VP’에 대응되는 한국어의 두 형식 ‘-지 않-’과 ‘-것 아니-’의문문이 어떤 의미적 특징에 의해 서로 구분되는가이다. 3장의 ‘-지 않-’의문문의 예시 (2)를 ‘-것 아니-’의문문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대부분 대체 가능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a. (너 왜 아직 여기 있어?) 명동에 간 거 아니야? (안 갔어?)  
 b. (개 명동 간 거 아니야.) 명동에 간 거 아니야? (안 갔어?)  
 c. (혹시 어제) 명동에 간 거 아니야?  
 d. (영희 어디 갔어?) 명동에 간 거 아니야? (갔잖아.)  
 e. (어허 사진이 찍혔는데.) 이래도 명동에 간 게 아니야?

이와 같이 ‘-것 아니-’의문문 역시 ‘-지 않-’의문문이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어 매우 유사한 맥락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다. 따라서 이 두 의문형식의 미세한 의미차이를 세부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是不是VP’의문문과 한국어 ‘-지 않-’, ‘-것 아니-’부정의문

국어학계의 긍정편향 비중립적 의문문에 대한 연구는 ‘-지 않-’ 부정의문문에 집중되어 있고, 이와 대비되는 ‘-것 아니-’부정의문문에 대한 논의는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것 아니-’부정의문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거의 부재

19) ‘是不是NP’는 반어문으로써 강한 긍정 진술의 화행 외에도 “你是不是人?”(네가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다))과 같이 적극적 부정 진술의 화행도 나타낼 수 있다.



한 상황에서 본고는 박소영(2001), 조인정(2011), 박나리(2012)의 한국어 ‘-(은/는) 것이다’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었으며, ‘是不是VP’의 말뭉치 검색 예문 의미를 분석하면서 ‘是不是VP’의 비중립적 의미에 대응되는 ‘-것 아니-’의문문과 ‘-지 않-’의문문의 의미적 구분을 시도하였다.

우선 ‘-지 않-’과 ‘-것 아니-’부정의문은 첫발화의 가능여부에 있어서 구별된다.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자 마자 “你昨天是不是去了明洞?”라고 묻는다면 이는 화청자의 답화 맥락과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발화가 아닌 첫발화(개시발화)로 제시되는 갑작스러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장경희(1982)에서 논의된 서상적 가정을 지닌 한국어 부정의문문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지 않-’의문문이 이에 적절한 대응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다.

- (11) 你昨天是不是去了明洞?      너 어제 (혹시) 명동에 가지 않았니?  
 대답: 沒有啊                              아니, 안 갔는데.

장경희(1982)에 의하면 이와 같이 긍정의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긍정의문문에 대한 응답과 동일한 응답유형(“명동에 갔니?” “아니 안 갔는데.”)을 지닐 수 있는 부정의문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 또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화자가 지닌 긍정의 서상적 가정만이 존재하고 적극적인 부정의 정보가 서실적 상황에서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sup>20)</sup> 한국어에서 이 같은 서상적 가정의문은 ‘-안-’이나 ‘-지 않-’의문으로 실현되며 ‘-것 아니-’의문(“너 어제 혹시 명동에 간 거 아니야?”)으로 표현될 수 없다. ‘-것 아니-’의문의 적절한 화용 문맥은, 청자의 어제의 행방을 파악하는 답화맥락에서 “(김새가 이상한데) 너 혹시 어제 (학교가 아니라) 명동에 간 거 아니야?”라고 자신의 추측을 얘기하는 경우이다. 이 같이 ‘-것 아니-’의 경우 아무런 답화의 맥락이나 선행 발화 없이 첫 발화에 사

20) 관련된 논의에서 박종갑(1986)은 답화장면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신정보의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 그러한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화자는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의문제기형식은, 화자의 그러한 생각이 확실한 것이 아닌 하나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임을 나타내거나 실제로는 화자가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발화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하였다.

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말뭉치 실례에서 'VP'가 '像'이라는 동사로 구성된 '是不是VP'의 경우 한국어의 '-같지 않-'이라는 '-지 않-'의문으로 실현됨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 (12) a. 吃飯的時候不要說話, 睡覺的時候不要說話, 這是不是像老媽子訓孩子的話? 엄마가 아이를 혼욕하는 말 같지 않니?  
 b. 是不是像個小孩兒? 어린 아이 같지 않니?

한국어의 말뭉치에서도 “크면 이쁠 것 같지 않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게 나올 것 같지 않아?” 등 ‘같다’ 동사가 사용된 표현은 ‘-것 아니-’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발견된다. 그 이유는 ‘-지 않-’이나 ‘-안부정의문이 나타내는 서상적인 가정의 첫발화와 관련되는 것 같다. 즉 이러한 문장의 가정 ‘마치 ~와 같다’는 화자의 마음속에만 있는 판단으로서 선행발화나 담화맥락에서 서실적 가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첫발화의 서상적 긍정 가정을 나타내는 ‘-지 않-’부정의문만 결합된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두 번째 차이는 ‘是不是’를 구성하는 ‘是’의 초점표지 기능과 관련된다. 呂叔湘(1985)에 의하면 ‘是不是’가 문두에 있든지 중간이나 문미에 오든지, 만약 문미강세 외에 그 앞의 어떤 성분(대부분은 ‘是不是’바로 뒤의 성분)에 강세가 있다면 의문점(疑問點, 疑問焦點)은 바로 이 성분에 있다.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3) a. 是不是你明天到車站去買票? (문미강세-문장전체가 초점)  
 너 내일 역에 표를 사러 가지 않니?  
 b. 是不是你明天到車站去買票?  
 네가 내일 역에 표를 사러 가는 거 아니야?  
 c. 你是不是明天到車站去買票?  
 너 내일 역에 표를 사러 가는 거 아니야?  
 d. 你明天是不是到車站去買票?  
 너 내일 역에 표를 사러 가는 거 아니야?

21) 장경희(1982)는 “이 소나무가 마치 산호 같이 생겼지?”, “이 소나무 마치 산호 같이 안 생겼니?”의 예를 통해 이 같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e. 你明天到車站去是不是買票?  
너 내일 역에 표를 사러 가는 거 아니야?

위의 (13)a와 같이 ‘是不是VP’는 문장전체가 의문초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是不是’에 후행하는 성분만이 의문초점일 수 있다. 문장전체가 의문초점일 경우 중국어의 문미강세가 적용된 경우에 해당하며 한국어의 ‘-지 않’의문이 이에 대응되고, 그 외 부분강세를 가진 문장요소가 초점일 경우 모두 ‘-것 아니’의문이 이에 대응된다.<sup>22)</sup> 부분 강세(초점)를 가진 b-e를 ‘-지 않’의문으로 바꾸면 어감상 ‘-것 아니’보다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초점을 갖는 문장은 선행발화의 부분적 내용을 정정하거나 고쳐서 표현하는 담화맥락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담화맥락에서는 모두 다음과 같이 ‘-것 아니’의문문이 사용된다.

- (14) a. (나 내일 표 사러가) 어? 오늘 사러 가는 거 아니야?  
b. 너 혹시 소매치기 당한 게 아니고 어디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  
c. 너 혹시 (여인의 향기 맡고) 딴 영화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말뭉치의 예문 분석 중 일부 부사들이 사용된 경우 문장단위에서 이미 명확한 초점영역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你們是不是故意選擇劉招華生日的這一天動手?(고의적으로 유소화의 생일 당일 날 출격한 거 아니에요?)”와 “你是不是成心誑我飯吃?”(너 고의로 나의 밥을 뺏어 먹는 거 아니야?)와 같이 ‘고의적으로’ 라는 의미의 ‘故意’, ‘成心’이 사용된 예들도 모두 초점역과 관련되며 ‘-것 아니’의문문이 이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초점관계에 있어서 ‘-지 않’과 ‘-것 아니’의문문의 차이는 첫발화로서의 사용 가능여부와 관련이 있다. 즉 ‘-지 않’의문문은 문장 전체가 초점이 될 수 있어서 새로운 정보로서 첫발화에 사용될 수 있지만, ‘-것 아니’의문은 부분 초점의 표현으로 기능하며 이전 발화정보와 담화맥락에 의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첫발화

22) 박소영(2001:135)에 의하면 “-은 것이다는 텍스트의 응결성 장치로서, 그것이 실현되는 문장은 통사적으로는 분열문 구성이며, 의미적으로는 초점화 기능의 양상을 갖는다. ‘-은 것이다’의 초점은 통사 구조와 문맥 정보간의 상관적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에 사용될 수 없다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세 번째 주요한 차이는 ‘是不是VP’가 이유나 원인을 말할 때 나타난다. 조인정(2011)에 의하면 ‘-은/는 것이다’는 선행 문장에서 언급한 상황이 어떠한 원인이나 이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언급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기 때문이다’와 교체될 수 있다. 본고에 따르면 부정형 ‘-것 아니’의문문 역시 다음과 같이 ‘是不是VP’가 선행발화의 이유 또는 원인을 보충할 때 이러한 의미에 대응된다.

- (15) a. 那您爲什麼又回到香港了呢, 您是不是覺得沒有什麼太大希望?  
왜 또 홍콩으로 돌아왔어요? 희망이 별로 없다고 느낀 거 아니에요?
- b. 她泪眼汪汪地說, 他在哭! 是不是還在生病啊?  
애가 아직 울고 있는데 여전히 어디가 아픈 거 아니에요?
- c. 爲什麼那個時候占卜這麼流行, 那時候占卜是不是真的很靈。  
왜 그 때는 점치는 것이 그렇게 유행했을까요? 그 때 점이 정말 영험했던 거 아니에요?
- d. 如果(員工)總是不在(眼前), 老板就會想: “是不是跳槽啦? 還說不定干私活呢!” 이직한 거 아니야?

위의 ‘是不是VP’의 예들은 모두 어떤 결과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추측하는 맥락에 사용된 것이다. 한국어말뭉치에서도 “나 왜 이렇게 속이 쓰리냐?”라는 상대의 말에 “위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답하는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이 같이 “이래서 또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식의 이유나 원인을 추측하는 ‘是不是VP’의 의미는 한국어의 ‘-것 아니’의문문으로 실현된다.

이상의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세 가지 차이 외에 이들 사이에 어투(語氣)의 차이도 존재하는데, ‘-것 아니’의문문이 ‘-지 않’의문문 보다 강한 어투를 전달한다. 안운미(2007:36)의 코퍼스의 용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용언의 어간+것 아니야?’는 ‘질책’, ‘비난’, ‘이의제기’의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관련된 ‘-것 아니’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6) a. 진짜 이걸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지 않니?)  
 b. 자신감이 지나치나 못해 너무 오만한 거 아니에요?  
 (너무 오만하지 않아요?)  
 c. 동서 너무 지독한 거 아니에요? (너무 지독하지 않아요?)  
 d. 썬팅이 너무 짙은 거 아니야? (썬팅이 너무 짙지 않아?)

위의 ‘-것 하나’의문의 예문들을 괄호안의 ‘-지 않-’의문과 비교하면 어기의 상대적 차이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중국어의 ‘是不是VP’ 역시 이러한 질책과 비난의 화용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是不是太自私了?”, “是不是太過分了?”, “是不是瘋了?” 등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와 “너무 하지 않아요?”, “미친 거 아니야?”와 “미치지 않았어?” 에 모두 대응될 수 있지만 ‘-거 하나’의 어투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여기에 화청자의 인칭에 따른 차이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위와 같은 맥락에서 2인칭 청자를 주어(대상)로 하는 경우(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너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는 ‘-것 하나’의문이 ‘-지 않-’의문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반면, 1인칭인 나를 주어로 하는 청자와의 대화(나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에서는 ‘-지 않-’의문이 ‘-것 하나’의문보다 자연스러워 보인다. 또한 1인칭 나에 대한 것을 혼자말로 한다면(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것 하나’의문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화청자의 평가라면 일반적으로 ‘-지 않-’의문이 확실히 비교적 완곡한 어투를 전달한다. 이러한 대조적 특징을 통해 화계에 따른 경어법이 발달한 한국어에서는 중국어보다 어투의 차이를 드러내는 표현이 더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是不是VP’의 담화상황이나 화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완곡한 표현을 요하는 담화장에서는 ‘-지 않-’의문문을, 상대적으로 강한 표현에는 ‘-것 하나’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sup>23)</sup>

23) 안윤미(2007:31-38, 43)는 드라마와 말뭉치에 나타난 부정의문문 ‘-지 않니’와 ‘-것 하나’의 의미를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들 부정의문문은 질책·비난·이의제기, 동의 요청, 주장강조, 염려, 추측, 공손표현 등의 의미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용언의 어간+지 않니’는 진술기능 중 소극적 진술의 공손표현(피곤하지 않으세요)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용언의 어간+것 하나야’는 진술기능 중 소극적 진술의 확인 중 추측의미

이 같은 한국어의 '-지 않-'부정의문은 또한 완곡하고 부드러운 어투를 전달함으로써 공손함 또는 예의와 관련되어 설명된다. 김미숙(1997:65-70)에 의하면 이 같은 부정의문은 소극적 진술의 화행을 나타내며 화자가 청자를 상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화청자관계를 드러내면서 상호 관계를 객관화시키고, 화자가 청자에 대해 예의바른 태도로 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공손표현의 한 방법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7) a. 이려다가 차를 놓치지나 않을까요? (놓치는 거 아니에요?)  
 b.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지 않니? (오고 있는 거 아니니?)  
 c. 너무 늦어서 지각하지 않겠니? (지각하는 거 아니야?)

김미숙(1997:66)에 따르면 이 같은 '-지 않-'부정의문은 담화 상에서 화자가 어떤 명제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청자에게 물어서 확인을 하려는 의도로 공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필자가 괄호로 제시한 '-것 아니-'의문문도 이와 유사한 담화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상대적인 어투의 세기와 관련하여 볼 때 덜 공손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어 '是不是VP'의문문은 “我們是不是找她談一談?”(우리 그녀를 찾아가서 얘기 좀 하지 않을까?) “是不是你親自出馬好一点?”(네가 직접 가는 게 좋지 않을까?) “李敖先生是不是可以公布一下你的通訊地址?”(선생님의 통신 주소를 공표해주지 않으실래요?)와 같은 제안, 건의, 행위요청 등의 화행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역시 한국어의 '-것 아니-'의문이 아닌 '-지 않-'의문이 대응될 수 있다.<sup>24)</sup> 김미숙(1997:74-84)은 부정의문문의 화행에 대해 청자의 행위 수행에 대한 화자의 전제가 약한 경우는 요청의 화행이 된다고 하였는데<sup>25)</sup>, 이러한

(너 혹시 소매치기 당한 게 아니고 어디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4) 이 역시 '-지 않-'의문의 개시발화에서의 사용, 초점역과 관련되어 보이는데, 이러한 요청의 화행은 문장 전체가 신정보로서 초점이 되어 개시발화(또는 맥락에 관계없는 갑작스런 제안, 요청)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25) 김미숙(1997:74)에 따르면 요청의 화행을 표현하는 형태에 대해 확신이 없는 화자전제는 청자의 의도를 묻는 '아니' 부정에 의한 부정의문문에 의도의 '-겠-' 혹은 의향의 '-르래-'와 같은 형태소들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화행은 모두 ‘-지 않’의문문으로 실현된다. 김미숙(1997:74)의 예와 함께 대응되는 ‘是不是VP’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8) a. 밖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是不是出去一下?  
 b. 밥 먹지 않을래?                  是不是一起吃飯?  
 c. 비켜주지 않으시겠어요?        是不是讓一下?  
 d. 차 한 잔 하지 않을래?         是不是一起喝杯茶?

위와 같이 행위요청 또는 제안의 화행문으로 사용된 ‘-지 않’의문문이 중국어의 ‘是不是VP’의문문과 동일 화행을 나타낸다. 다만 1인칭 단수의 화자가 주어로 표현된 ‘是不是VP’의 제안 화행, 예를 들면, “是不是我去帮助他一下?”, “我是不是請教一下老師?” 등의 경우는 한국어에서는 부정의문문으로 표현되지 않는 제약이 있다. 이는 1인칭 ‘나’의 행위에 대해 상대에게 공손하게 제안하고 동의를 요청하는 화행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내가 가서 그를 도와주면 어떨까?”, “선생님께 가르침을 구할 수 있을까요?” 등의 긍정의문문으로 표현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긍정 편향의 비중립적 의문문인 ‘是不是’의문문, 부정의문문(‘不/沒VP嗎’), ‘不是……嗎’반어문과 한국어의 부정관정의문문을 대조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관계를 확립하고 화용의미의 구분을 시도하였다.

[표4] 중·한 긍정편향 비중립적 의문문의 대응관계

중국어 형식	중국어 예시	대응한국어 예시
① 不/沒VP嗎 (부정의문)	가. 英姬不吃嗎? (VP미실현형)	영희가(는) 먹지 않니? (안 먹니?)
	나. 英姬沒吃嗎? (VP실현형)	영희가(는) 먹지 않았니? (안 먹었니?)
② 是不是NP/VP (是不是의문)	가. 是不是英姬吃? (VP미실현형)	영희가 먹지 않니? (먹는 거 아니니?)
	나. 是不是英姬吃了? (VP실현형)	영희가 먹지 않았니? (먹은 거 아니니?)
	다. 他是不是英姬的男朋友? (NP)	채는 영희 남자친구 아니니? ↗

③ 不是NP/VP吗 (반어문)	가. 英姬不是吃吗?(VP미실현형)	영희는 먹지 않니? (먹잖니?)
	나. 英姬不是吃了吗?(VP실현형)	영희는 먹지 않았니? (먹잖았니?)
	다. 他不是英姬的男朋友吗?(NP)	재는 영희 남자친구 아니니? (잖니?)

이상과 같이 기존 연구와는 달리 ‘是不是’의문문에 ‘是不是NP/VP’를 통합하고 ‘不是……嗎’반어문에는 ‘不是NP/VP嗎’를 통합하여 각각의 의미를 구분하고 한국어 어와의 대응관계를 논의하였다. 이들의 의미를 5가지로 구분하였는데 ①과 같은 부정의문문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긍정적 가정이 부정되는 사실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실적 상황을 담화장의 상황과 선행화자의 발화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의문문은 반어법의 용법에서 긍정 편향의 비중립적 의미인 강한 긍정 진술(적극적 진술)을 나타낸다.

또한 ②의 ‘是不是’의문문 중 ‘是不是VP’의문문과 한국어 ‘-지 않-’과 ‘-것 아냐-’ 부정의문문의 대응관계를 논의하였는데, ‘是不是VP’의문문의 비중립적 의미에 있어서 한국어 두 형식의 차이는 개시발화 여부, 초점관계, 원인 또는 이유의 제시에 있어서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었고, 이에 더해 어투와 조심성 또는 예의의 정도 차이와 함께, 제안(또는 행위요청) 화행의 실행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상 본고의 논의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긍정 편향의 부정의문문의 교수와 중·한 관련형식의 대조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직 부족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길 바란다.

〈參考文獻〉

[한국어 문헌]

강현화, 「코퍼스에 기반한 ‘-잖다’의 화행적 특성 고찰」, 『한국어 의미학』 28, 2009.  
 고영근, 「국어의 문체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2-1, 1976.  
 구종남, 「국어 의문문의 화행과 응답 방식」, 『한국언어문학』 46, 2001.  
 구종남, 「국어 부정의문문에 대한 응답 방식 연구: 통계적 접근 연구의 목적」, 『국어국문학』 136, 2004.



- 김동식, 「부정 아닌 부정」, 『언어』 6-2, 1981.
- 김미숙, 「부정문의 간접 화행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김미희, 「부정 의문문의 확인 용법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종택, 『국어 화용론』, 형설출판사, 1982.
- 류현미, 「판정 의문문의 화용의미에 대하여」, 『언어연구』 8, 1992.
- 박나리, 「-는 것이다구문 연구」, 『국어학』 65, 2012.
- 박소영, 「-ㄴ 것이다구성의 텍스트 분석」, 『한국 텍스트과학의 제 과제』, 135-158, 서울: 역락, 2001.
- 박영순, 『한국어 화용론』, 박이정, 2007.
- 박유경, 「부정 의문문 '-지 않아요'에 나타나는 비중립적 태도 의미에 대하여」, 『우리말 학회 겨울 학술대회 발표집』, 2017.
- 박정구 역, 『중국어 화용론』, 신성출판사, 2005.
- 박종갑, 「의문문과 간접언어행위」, 『한민족어문학』 9, 1982
- 박종갑, 「의문문의 화용적 특성(1)」, 『한민족어문학』 11, 1984.
- 배정경,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부정의문문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성광수, 「국어의 부가의문에 대하여」, 『한글』 N100, 1980.
- 손세모들, 「-잖아'의 의미, 전제, 함축」, 『국어학』 33, 1999.
- 안윤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부정 의문문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양인석, 「한국어 양상의 화용론」, 『언어』 1, 1976.
- 이성구, 「국어 의문의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국문학 연구회』 18, 1983.
- 이준호, 「화용론적 관점에서 본 의문문 교육 연구」, 『한국어 교육』 19, 2008.
- 이현희, 「-잖은 단지 '-지 않음'의 음운론적 축약형인가」, 『한국어학』 23, 2004.
- 이춘엽,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의문문의 교육 연구 -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장경기, 「국어의 부정의문문과 전제」, 『어학연구』 22.1, 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 1986.
- 장경기, 「국어의 부정의문문과 화행」, 『울산대학교 연구 논문집』 20-1, 울산대학교, 1989.
- 장경기, 「수사의문문과 전제의문문의 통사적 연구」, 『현대영미어문학』 30-4, 2012.
- 장경희, 「국어 의문법의 긍정과 부정」, 『국어학』 11, 1982.
- 장석진, 「국어의 부가의문-형식과 기능」, 『언어』 9, 1984a.
- 장석진, 「화행의 이론과 실제-동문서답」, 『어학연구』 20, 1984b.

- 정원수, 「부정형태 ‘잖(잖)’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1988.
- 조인정, 「표현 문형 ‘-은/는 것이다’의 담화 기능」, 『한국어교육』 22-2, 2011.
- 진강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의문문 교육 연구」, 『국어교육연구』 28, 2011.
- 진강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최창렬, 「맥락과 발화의미」,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어학』 제10집, 1983.
- 한승규, 「-지 않-의 축약과 융합 형태 ‘-잖-’의 특성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34, 2014.
- 황병순, 「화행이론에 의한 문법기술의 설명력에 대하여」, 『牧泉俞昌均博士還甲紀念論文集』, 1984.
- 황성희, 『형태소 ‘-잖-’의 의미기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황희영, 「문맥분석-한국어 부정의문문과 응답어의 의미론적 분석」, 『어문론집』 9, 1974.

[중국어 문헌]

- 曹娟, 「“不是……吗”类反问句的功能及对外汉语教学」, 『首都外语论坛』 00期, 2010.
- 陈昌来, 「从“有疑而问”到“無疑而问”—疑问句语法手段浅探」, 『烟台師範學院學報哲社版』 第01期, 1993.
- 陈颖, 「带有“是不是”的疑问句的祈使用法」, 『语言学论文选集』, 哈尔滨: 黑龙江教育出版社, 2001.
- 丁雪欢, 「留学生汉语正反问句习得中的选择偏向及其制约因素」, 『世界汉语教学』 第4期, 2008.
- 方梅, 「疑问标记“是不是”的虚化—从疑问标记到话语语用标记」, 『语法化與语法研究(二)』, 北京: 商务印书馆, 2005.
- 郭继懋, 「谈表提醒的“不是”」, 『中国语文』 第2期, 1987.
- 郭继懋, 「反问句的语义语用特点」, 『中国语文』 第2期, 1997.
- 胡建锋, 「“不是……吗?”反诘问句的前后景功能」, 『当代修辞学』 第3期, 2011.
- 刘娅琼·陶红印, 「汉语谈话中否定反问句的事理立场功能及类型」, 『中国语文』 第2期, 2011.
- 刘瑛, 「现代汉语正反问句研究」, 河南大学硕士论文, 2002.
- 刘瑛, 「肯定还是否定?—正反问句形成的语用因素探究」, 『语言本体研究』 第八期, 2014.
- 刘月华, 『实用现代汉语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2004.
- 吕叔湘, 「疑问·否定·肯定」, 『中国语文』 第4期, 1985.

- 毛文星, 「“不是……吗?”反问句的语义背景与语用功能」, 『山西师大学报(社会科学版)』第37卷, 2010.
- 齐沪扬·胡建锋, 「试论“不是……吗”反问句的疑问用法」, 『上海师范大学学报』第3期, 2010.
- 邵敬敏·朱彦, 「“是不是VP”问句的肯定性倾向及其类型学意义」, 『世界汉语教学』第3期, 2002.
- 史金生, 「表反问的“不是”」, 『中国语文』第1期, 1997.
- 陶炼, 「“是不是”问句说略」, 『中国语文』第2期, 1998.
- 吴丽君·鲁文霞, 「现代汉语“不是……吗”句式的语用分析」, 『国际汉语教学动态与研究』第2期, 2008.
- 徐盛桓, 「疑问句探询功能的迁移」, 『中国语文』第1期, 1999.
- 殷树林, 「现代汉语反问句研究」, 福建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2006.
- 于根元, 「反问句的性质和作用」, 『中国语文』第6期, 1984.
- 袁毓林, 「正反问句及相关的类型学参项」, 『中国语文』第2期, 1993.
- 张发明, 「试论“不是……吗”反问句」, 『内蒙古民族师院学报(社会科学汉文版)』第4期, 1989.
- 张雪, 「“不是……吗”的句法和语用分析」, 『安庆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版)』第4期, 2012.
- 赵雷, 「谈反问句教学」, 『语言教学与研究』第3期, 2000.

[영어 문헌]

- Austin, J. L.,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1962.
- Bolinger, D., “Yes-No Questions are not Alternative Questions”, in H. Hiz, ed. *Questions*,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 1978.
- Cattell, R., “Negative Transportation and Tag Questions”, *Language* 49.3, 1973.
- Chafe, Wallace,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0.
- Greenbaum, S. and G. Nelson, *An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3rd ed., Pearson, 2009.
- Hoepelman, J. “On Questions”, J. A. G. Grondendijk, T. M. V. Janssen and M. B. J. Stokhof, eds., *Formal Methods in the Study of Language*. Mathematical Centre Tracts, Amsterdam, 1981.
- Hudson, R. A., “The Meaning of Questions”, *Language* 51.1, 1975.
- Karttunen, L., “Presupposition of Compound Sentences”, *Linguistic Inquiry* 4.2, 1973.

Kiefer, F., *Questions and Answers*,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 1983.

Searle, J. R., *Speech Acts*, Cambridge U. Press, 1969.

Searle, J. R., "Indirect Speech Acts", *Syntax and Semantics* 3, 1975.

〈Abstract〉

A Study on Analyzing of Pragmatic Function of Positive Presuppositional  
Non-Neutral Questions in Chinese and Korean  
– Focusing on Shi bu Shi Questions and Negative Yes-No Questions

Lee, Eun-Kyoung

This paper compared Positive Presuppositional Non-Neutral Questions in Chinese ('shibushi' questions), Negative Questions ('bu/meiVPma'), 'bushi……ma' Rhetorical Questions and Korean (Negative yes-no questions).

What is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is that the study comprehensively explained shi bu shi Questions (shibushi NP/VP) and 'bushi...ma' rhetorical Questions' (bushiNP/VPma).

In addition, the meaning of negative questions in Korean was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That includes the meaning of common negative questions, the meaning of positive assumption, the meaning of '-chan-' (쟤), and the meaning of rhetorical uses of negative Questions.

We also discussed the corresponding relation between 'shibushiVP' and '-chi an-' and 'kut ani' negative questions in Korean.

They were relatively clearly identified in terms of whether they were initiated, whether they were focused, and whether the causes or reasons were presented. And the difference between tone and action request was explained.

We hope that such questions and research from this paper will provide a new perspective and contribute to the study of the contrast between Korean and Chinese

learners' language acquisition and Chinese-Korean corresponding forms.

Key words: Positive Presuppositional Non-Neutral Questions, shi bu shi Questions, bu shi VP ma, bu/mei VP ma, Rhetorical Questions in Chinese, Negative Yes-No Questions in Korean, Rhetorical Questions in Korean, Semantic Function

이 논문은 2019년 4월 25일에 접수되어 2019년 5월 13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5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